

한 가지가 필요하다(43)

성경말씀: 눅10:38-42

지난 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 믿는다는 고백과 삶이 따로 논다. 우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서 살려 줘. 교회는 성도는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38).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제자의 기본 도리,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수용하는 데가 아니다.

배경

유대로 향하시다가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심(요11:1), 예루살렘 동쪽 2.5킬로미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임(38), 요11:5,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역, 여러 때에 많은 곳에서 여인들이 희생하며 사역을 도움,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표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신 이유: 말씀을 들으려고(39), 많은 사람들의 오해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한다. No! 마리아도(also) 마르다처럼 말씀을 들음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로 괴로워함(40).

참으로 귀한 품성의 여인: 그런데 섬기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모토: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라. 주방, 주차, 찬양대, 교사, 청소, 목사의 설교 준비
괴로움을 당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 사정을 아뢴다(40). 예수님의 말씀(41)

한 가지가 필요하다(42).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요, 군사다.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이것을 경배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경배라는 말은 존경하며 꿇어 엎드린다는 뜻

그러므로 경배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핵심, 모든 일의 근원

그것은 한 마디로 한 가지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의 특징: 항상 먼저 가서 주님을 영접함(38), 요11:20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데 일에 지쳐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 특히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

마리아: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 같은 장소에 있다.

1. 눅10:39, 2. 요11:32(나사로의 죽음), 3. 요12:3(나사로 방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 그녀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한 가지

이 말씀의 핵심은 마르다가 잘못을 했다거나 일은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이 손으로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에 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자기의 의가 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은 균형을 이야기한다. 마리아의 경배와 마르다의 섬김의 균형

음식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다. 그런데 섬김이 없이 말씀만 들으면 암체
마르다는 영접하고서는 그분의 중요성을 잊고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고 바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42).

꼭 필요한 한 가지

여기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마4:4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들면 일을 멈추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

경건 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일의 공예배에 왜 오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일을 해서 여기까지 믿음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일들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면 일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

주님과의 교제

매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한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매주 성경 읽기 과제, 이유: 주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많은 일을 하였다. 현금의 원리: 23.3%, 자원, 서원 헌물 등

바리새인들: 600여 개의 규율을 만들고 지키려고 함

왜 이리하였을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의 마음에는 추호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음

그런데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으신 예수님, 백성을 죄들에서 건질 분이 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함

호세아 대언자: 북 왕국 이스라엘 극심한 타락, 신실한 남편인 주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의 방법: 호세아더러 행음하는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심(호1:2)

호세아의 순종(3), 그녀는 아들과 땅을 낳은 뒤 다시 행음함

하나님의 명령(호3:1), 다시 그녀를 데려 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진단: 호4:1,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다.

그 이유(호4:6):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의 진단(롬10:1-4)

무언가 일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언(호4:14):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다시 강조: 마르다는 아니고 마리아 No!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데 삶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 목요일에 아내가 미국에 감, 에피소드, 3-40분 실조 사건

나의 짜증, 아내의 대답: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상황을 잘 살피고 상대방 배려

그 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른다. 울음이 나오고 힘들었다.

카톡 가족 방에 이야기를 쓰고 “내가 먼저 죽더라도 엄마를 귀하게 여기라”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세상 공부, 교수(연구, 인력 양성), 성경 번역, 목회

이 모든 것을 정신없이 하다가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됨(구원 상실 No!)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품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함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

성도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긴다: 무엇이 문제인가? 경건의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았어도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이 일어난다.

마르다의 변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받은 뒤 마르다는 변화였다.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다(요11:25-26)

마르다의 대답(요10:27).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 마16:15-16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필요한 것에 집중하였다. 설교에 집중

그것은 돈, 명예, 교육,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필수설교 40선 1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인생, 삶과 죽음, 결혼, 자녀 교육, 바르게 사는 것, 돈 문제, 영원

다 성경에 있다. 마4:4

그리고는 행동이 바뀌었다(요12:1-2), 저녁 식사를 베풀: 예수님, 12제자, 가족 3명, 15명

한 마다 불평이 없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